

오르프 매체(Orff Media)를 활용한 학습활동 연구

윤 영 배*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II. 이론적 배경

1. 오르프의 교육사상과 이념
2. 기초음악
3. 솔베르크
4. 리듬지도
5. 선율지도

III. 오르프 학습매체(Media)

1. 말하기
2. 노래 부르기
3. 신체표현
4. 악기연주

IV. 오르프 매체를 활용한 학습활동의 실제

V. 결론 및 제언

※ 주제어 : 오르프 방법론, 오르프 매체, 음악교육

* 동해대학교 유아교육학부 교수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음악문화의 물결 속에서 좋은 싫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음악적 정서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인간성 회복의 도구라고 하는 음악이 우리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며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음악적 정서를 느끼고, 즐기고,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육자, 철학자들이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를 했으며 음악교육 또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음악교육은 그 본질과 방법적인 면에서 진부하고 일부영역에만 치우치는 편협한 교육활동으로 일관되고 있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특히 기초교육의 부실로 인하여 음악의 본질도 체험하기 전에 고도의 기술교육으로 치닫는 생명력 없는 교육이 이루어짐이 작금의 우리 음악교육의 현실이다.

독일의 음악가요 교육자인 칼 오르프의 음악교수법은 현재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세계각지에 전파되어 있으며 현지 오스트리아 찰스부르크의 오르프 인스티튜트(Orff Institute)에서 직접 오르프를 공부하는 전문가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에 오스트리아 오르프 인스티튜트에 서 공부한 분들을 모태로 80년대부터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칼 오르프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가 있고 근년에 접어들어 오르프의 교수법을 적용한 현장 적용 사례도 많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나 하지만 아직도 전체적인 우리교육 현장에서의 적용은 미미하며 오르프 음악활동이 현장에 적용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선진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어 있으며 특히 현대교육의 이념인 창의력 신장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칼 오르프의 음악교수법을 활용한 학습활동 프로그램개발을 개발하여 오르프 교수법이 문화와 환경이 다른 외국학자의 이론의 범위를 넘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국내 오르프 연구기관을 통해 접한 오르프 활동과 오스트리아 팔스부르크의 현지 오르프 인스티튜트에서 체험한 오르프 교수법을 선행 문헌연구를 토대로 본인의 관점에서 이론을 정리하였으며 실제 오르프활동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학습매체로의 접근을 통한 학습활동 프로그램을 제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오르프의 교육사상과 이념

칼 오르프는 1895년 7월 10일 독일 뮌헨에서 출생하여 1982년 3월 29일에 사망한 독일의 대표적인 작곡가요 교육자로서 음악사상 큰 업적을 남긴 음악가이다. 그는 ‘음악은 모든 어린이의 것’ 이라고 주창하고 ‘모든 음악교육은 원시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는 그의 교육론을 통해서 새로운 음악지도 방향을 제시하였다.

스위스의 작곡가요 교육자인 에밀 자크 달크로즈(E. J .Dalcroze)¹⁾로부터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무용교육자 도로테 귄터(Dorothee Gunther)와 달크로즈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교수법에 있어서 신체표현이 ‘음악에 구속받고

1) Emile Jaques Dalcroze : 달크로즈(1885-1950)스위스 작곡가겸 음악교육자, 음악과 신체표현을 융합하여 리듬감각의 신장을 촉진하는 독특한 교수법 유리드믹스(Eurhythmics:아름다운 흐름결, 훌륭한 움직임이라는 뜻) 창시, 보급.

있음'에 한계를 느낀 마리 빅만(Marry Wigman)과의 만남은 오르프의 음악 지도 방법 및 자료 개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오르프 역시 달크로즈 교수법에 '실현되지 못한 음악활동'에 대한 아쉬움과 그와는 다른 관점(조순이, 2000, p. 4)에서의 이념을 실현하기위해 1924년 도로테 귄터(Dorothee Gunther)와 함께 뮌헨에 귄터 학교(Gunther Schule)를 설립하고 무용 및 체조교사 양성을 목표로 음악과 동작이 통합된 지도방법을 연구하여 가르치기 시작함으로써 선구적인 음악교육가로서의 길을 열었다. 그는 교육용 악기개발과 더불어 음악과 신체동작과의 관련성에 관심을 가지고 즉흥연주와 무용을 결합한 독특한 형태의 연주방법을 개발하였다.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인해 귄터 학교는 폐허가 되었지만 전쟁 직후 1948년 바바리안(Bavarian)라디오방송국에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오르프의 지휘 하에 진행된 소년 소녀들의 입장식과 군무작품이 수록된 레코드를 발견, 방송함으로써 다시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오르프는 음악교육 사업에 더욱 정열을 쏟게 되었다. 오르프는 라디오 방송의 한계인 시각적인 전달의 불가능을 고민하던 끝에 급기야 어린이음악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결정적인 한 요소를 깨달았다.

칼 오르프는 어린이들의 환상적, 내적 경험인 동화나 수수께끼 등에서 음악과 동작을 창조하도록 하여 음악활동에 참여케 하고 어린이들이 느낌, 감정, 생각을 그들의 본성에 맞게 표현하게 하여 자신들의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편에 서서 이끌어 주는 안내자로서 역할을 강조한 자연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아동중심 교육가였다. 이 세상 모든 어린이가 성장하는 동안 주변과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한 일차적인 수단은 바로 말-언어로서 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음악의 귀중한 자료로, 음악과 언어와 율동이 하나로 통합된 방법을 생각했고 이는 오르프 접근방법의 바탕을 이루게 되었다(조순이, 2003, p. 3).

그는 창의적인 사람, 진정한 예술인은 생산적이며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특별한 것을 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르프의 음악교육에 대한 사상과 이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Stone, 1971, pp. 113-122).

첫째 음악은 나이와 재능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어린이를 위한 것이다. 음악교육은 평범하고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것이어야 한다.

둘째 음악은 직접적인 체험이어야 한다. 연주에 앞서 곡으로 형성되기 이전의 음악이 형성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며 음악적인 기교를 배워 연주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의 의도대로 음악을 만들어 표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음악의 체험은 어릴 때 시작해야 하며 천진한 놀이에서부터 성장 단계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유아 자신의 수준의 음악으로까지 이끌어 주어야 한다. 오르프는 될 수 있으면 이른 시기에 음악지도를 시작하도록 강조한다.

넷째 음악적 체험은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오르프는 음악활동은 스스로가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 하도록 권장하며 그의 저서[슐베르크] 또한 그러한 자료라고 말하고 있다.

다섯째 음악은 성격상 원초적인 것이어야 한다. 기초음악은 다듬어지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거의 신체활동에 가까운 음악이다. 따라서 누구나 익히고 즐길 수 있으며 그러한 음악이야말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다.

여섯째 음악은 놀이와 언어, 노래, 신체동작, 악기연주 등이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체험이어야 한다. 어린이의 세계에서는 말하기, 노래 부르기, 춤 등의 신체표현은 놀이의 본능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은 즉흥적인 활동 속에서 창의력 신장을 도모한다.

일곱째 리듬과 선율이 음악의 출발점이다. 리듬은 음악을 이루는 근본이며 그것은 말의 형태로 시작되고 선율은 리듬이 발전된 것이라고 했다.

여덟째 비(非)음악인 어린이는 없다. 전혀 음악적이지 않은 어린이는 없으며 누구나 어떤 한 시점에서 음악에 접근할 수 있고 가르쳐질 수 있다고 믿었다.

2. 기초음악

기초음악은 ‘원초적인 음악’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인위적으로 다듬어 지지 않은 본능적인 움직임과 리듬이 그 근본 토대로써 이 두 요소가 음악활동의 기초요소로 시도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르프는 리듬 지도는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고 시도한 끝에 기초(원시)음악이 어린이의 음악지도에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음악성은 마치 음악이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과정을 밟듯 단계적으로 발달하며 음악교육은 인간이 성장 발달하는 패턴에 따라 단계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초(Elemental)’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기초음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초음악은 신체표현과 언어와 더불어 존재하는 음악이다.

둘째 기초음악은 적극적인 참여로써 의미를 가진다.

셋째 기초음악은 단순한 구조와 반복되는 음형을 가진 축소된 론도 같은 것이다.

넷째 기초음악은 다듬어지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거의 신체활동에 가깝다.

다섯째 기초음악은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으며 재능에 구애받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다.

3. 오르프 숄베르크(Orff Schulwerk)

오르프는 구닐트 케트만(Gunild Keetmann : 1904-1990) 숄베르크의 공동 저자)과 어린이들이 듣고 배울 수 있는 악곡을 작곡했는데 이 악곡들은 언어와 노래, 소수의 악기를 포함한 새로운 기법에 의한 것들이었다. 오르프의 음악이 방송되면서 반응이 대단하여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악보와 악기를 구하기를 원했으며 보다 많은 방송지도의 요청이 쇄도했다. 결국 1954년에 5권의 오르프 숄베르크(Orff Schulwerk)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이는 오르프 지도방법의 대명사가 되었고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기초음악의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한 오르프 숄베르크는 교사를 위한 안내서로서 단계적인 연습곡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는 어린이들의 즉흥활동을 할 수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음악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즉흥연주와 작곡, 연주 악곡용의 많은 작품이 수록되어 학생들의 학습 정도에 따라 책과 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오르프 [숄베르크]는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곡들로 짜여져 있다.

제 1권 : 5음 음계(pentatonic scale)를 바탕으로 작곡된 노래들

제 2권 : 장조, 보르둔(bordun)²⁾이 포함된 곡들

제 3권 : 장조, 딸림화음이 포함된 곡들

제 4권 : 단조, 보르둔이 포함된 곡들

제 5권 : 단조, 딸림화음이 포함된 곡들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제1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5음 음계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즉흥연주와 합주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오스티나토 패턴과 보르둔이 거의 모든 악곡에 사용되어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러한 패턴을 만들어 연주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셋째 기악 합주곡에 민요를 많이 이용하였고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관용적 표현법과 어린이들의 일상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가진 음악을 많이 사용하였다.

넷째 기악 합주곡의 동기(Motive)는 주로 기존의 노래들에서 뽑아 썼고 그 동기는 다시 도입부와 반주부 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다섯째 독특한 악기 배합에 의한 중주와 합주가 시도되었다.

여섯째 단3도 음정으로 이루어진 이름 부르기과 단순한 노래 부르기 등을 어려운 악곡을 체험하게 되기까지 점차 그 수준을 높여가게 된다.

일곱째 하나의 낱말로 시작하여 점차 복잡해지면서 캐논(Canon)형태로까지 발전하는 ‘말의 흐름꼴’ 학습이 시도되었다.

2) 보르둔(Bordon) : 5도나 8도 관계의 두음을 동시에 사용하는 단순한 저음 반주형태를 말 하며, 두 음을 계속 반복하는 고정 보르둔과 두음이 위나 아래로 움직이는 이동 보르둔, 화음의 각 음을 연속적으로 연주하는 알페지오 보르둔이 있다.

4. 리듬지도

오르프는 리듬이 선율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리듬은 울동에서 발생되어야 하고 선율은 언어의 리듬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언어가 학습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이경신, 1996, p. 14).

1) 언어 리듬

오르프는 말의 패턴에서 리듬활동으로, 리듬활동에서 노래 부르기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으로 보았다. 어린이의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특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 감나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리듬으로 익힐 수 있게 하고, 주로 4박자의 4분 음표, 8분 음표 등으로 이루어진 리듬이 무난하다. 아동의 이름, 장소, 색깔, 요일, 동물, 과일, 인사말 등 일상적인 단어와 어휘에 리듬을 맞춰 손뼉 치기, 노래 부르기의 방법을 사용해 리듬감을 길러준다.

2) 신체 리듬

신체의 자연스런 동작을 통해 음악적 개념과 연결시키고 리듬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손가락 튕기기, 손뼉 치기, 무릎치기, 발 구르기 등의 단순한 신체 동작에 의해 리듬감이 형성되고 리듬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이 발달된다고 하였으며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신체표현이 리듬, 즉 음악적인 감각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여겼다.

3) 악기를 통한 리듬지도

언어 리듬과 신체 리듬 교육이 익숙해지면 악기를 통한 리듬교육을 하고 리듬의 강약에 알맞은 리듬 연주가 가능해지면 점차 기악 합주로 발전시켜 나간다.

4) 형식을 통한 리듬지도

오스티나토를 사용하여 리듬을 지도함은 반복의 개념을 습득시키고 동시에 리듬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캐논은 악보의 일정한 부분에서부터 따라하는 돌림노래 형식으로 모방 개념을 보다 쉽게 습득시키는 역할을 하며 신체동작, 악기연주에 언어 캐논을 더함으로 더욱 강화된 리듬감을 사용하게 된다(임순영, 2000, p. 62). 리듬 론도란 여러 명 가운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나의 후렴구에 즉흥적으로 그 후렴구에 대한 악구를 붙이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통하여 대조의 개념을 습득하고 즉흥 활동을 통한 각자의 창의성을 개발하게 된다(임순영, 2000, p. 71).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르프는 리듬을 강조하고 그 다음으로 선율, 악식, 즉흥연주의 순서로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선율지도

선율은 리듬에서 발생하므로 오르프는 선율의 이해와 느낌은 자연스러운 말의 억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여 이를 5음 음계에 기초를 두고 제한된 음에서 단계적으로 지도하였다.

오르프는 5음 음계에 기초한 음악이 어린이들의 정신력에 가장 가깝게 상응하며 5음 음계에는 조성이나 반음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협화음으로 인한 긴장과 해결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음을 소리내도 자연스러운 즉흥연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므로 5음 음계에 의한 멜로디 지도는 어린이들의 자연스러운 음악 욕구에 일치되는 것으로서 어린이와 가장 친근하고 원초적인 음악적 소재이며 이는 장차 여러 형태의 음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룰 뿐 아니라 5음 음계에 의한 음악은 다른 종류의 음악의 강력한 전례를 모방할 위험이 없이 자기의 독특한 방식을 발견하도록 강조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음악적인 창의력 신장에 크게 도움을 주는 음악적 소재인 것이다'(Orff & Keetmann, 1950-1954)라고 말하고 있다. 5음 음계를 기초한 멜로디의 시작은 하행 단3도의 빠꾸기 울음소리, 즉 솔(G)-미(M), 2음으로 시작되며 점진적으로 한 음씩 첨가하여 5음 음

계로 발전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하행하는 단 3도 선율은 전 세계를 통해 발견된 유아 시기의 가장 일반화된 음정이기도 하다.

* 2음(Sol - mi)

* 3음(Sol - Mi - La)

* 4음(Sol - Mi - La - Re)

* 5음(La - Sol - Mi - Re - Do)

오르프 술베르크 제4권에서부터 에올리안(Aeolian), 도리안(Dorian), 프리지안(Phrygian) 등이 나오며 이렇게 단계적인 발전을 거쳐 어린이로 하여금 멜로디 악기에 흥미를 갖게 하면서 즉흥적인 선율과 오스티나토적인 반주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IV. 오르프 학습매체(Media)

오르프는 음악을 지적으로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신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음악적 감각을 계발시킨다는 궁극적 목표를 삼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음악에 접근하도록 방향을 이끌고 있다(임순영, 2000, p. 48). 이러한 활동을 위한 학습매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말하기(Speech), 노래하기(Singing), 신체동작(Movement), 악기연주(Instruments)로 나누어진다.

1. 말하기(Speech)

말하기는 어린이들이 글을 깨우치기 전부터 가장 자연스럽게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수단의 하나로 평소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말의 리듬을 이용하는 음악활동이다. 특히 말하기 게임(찬트, 이름 말하기 등), 라임(시의운율, 노래가사 등), 속담 등과 사람의 목소리는 음악적 기본요소(리듬, 박자, 빠르기, 음색, 표현)를 공부하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

말하기 활동은 손가락 튕기기, 손뼉 치기, 무릎치기, 발 구르기 등의 신체 타악기에서 무 선을 타악기 그리고 선을 타악기로 전환되며 음악을 읽고 쓰는 능력의 발달과 즉흥연주의 발달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기는 오르프 학습매체의 노래 부르기와 밀접한 연관으로 종종 혼동되어 학습활동이 가볍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2. 노래 부르기 (SINGING)

말 리듬놀이를 익히고 난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노래 부르기이다. 노래 부르는 것은 단지 멜로디를 배우것 외에도 음악의 다른 요소(형식, 화성, 다이내믹)등을 배우기 좋은 수단이 된다. 자기나라의 전통 민요나 구전 놀이요(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는 오르프 노래 지도의 중요한 자료가 되며 자국의 문화적인 소재를 활용함이 중요하다.

노래 부르는 것은 체계적으로 지도된다. 처음에는 교사와 어린이, 또는 어린이들끼리 서로 응답하거나 교사의 노래를 모방한다. 졸탄 코다이와 같이 [솔]-[미]의 하행 단3도 음정으로 간단한 선율을 만들어 자기 이름, 사물, 말하고 싶은 내용을 노래로 응답하기를 익힌 다음 [라]가 추가되며 차례로 [레],[도]가 첨가되고 이 5음 음계의 이동 [도]법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파]와 [시]가 포함된 7음계를 사용한다. 노래 부르는 것은 수업의 기본 요소이며 누구나가 부담 없이 가지는 신체악기이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사전에 충분히 곡을 숙지해야 함을 명심해야한다.

3. 신체표현 (MOVEMENT)

음악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린이에게 가장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음악학습 방법이다. 말하기와 더불어 신체표현은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음악학습이며 자신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한다.

오르프 활동에서 신체표현의 영역은 매우 넓다. 걷기, 기기, 달리기, 뛰기, 돌기, 손뼉 치기, 발 구르기, 무릎치기, 손가락 튕기기 등 어린이들의 자연스

럽고 일상적인 움직임이 모두 포함된다. 특별히 연습하지 않고도, 특정한 목적도 없이 아이들은 혼자 있을 때에도 재미로도 몸을 움직인다.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몸의 움직임 자체가 큰 즐거움이다. 오르프는 음악지도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음악과 자연스럽게 관련지었다.

신체표현은 악기 앙상블에서 신체 타악기(Body Percussion)로 이용되며 말하기, 노래 부르기에 반주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신체동작은 박, 빠르기와 같은 리듬의 개념 외에도 선율의 흐름, 다이내믹, 셈여림 등의 학습을 위해서도 활용되며 음악의 구조와 형식 등 매우 구체적이고 보다 더 복잡한 표현을 어린이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오르프 음악 활동에서는 어린이들이 두뇌활동과 마찬가지로 신체동작을 통하여 음악을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4. 악기연주 (INSTRUMENT)

악기는 오르프 교수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학습 자료로 오르프에 의해 제작되었고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원시적인 매력을 지닌 타악기와 타악기식 선율악기가 중심이 된다.

1) 목소리(Voice)

오르프에서 악기로 사용되는 목소리는 ‘트’, ‘츠’, ‘파’ 등의 다양한 의성어들과 휘 바람 소리, 허 텅기는 소리, 트림하는 소리 등의 입으로 낼 수 있는 다양한 소리의 효과들이 쓰인다. 이러한 의성어와 소리 효과는 리듬 앙상블, 음의 높낮이, 음색 등을 학습하는데 효과적이다.

2) 신체 타악기(Body Percussion)

사람의 신체를 이용한 4가지 종류의 신체 타악기를 이용하여 일정하게 지속되는 박(ostinato)을 연주하거나 실제 악기로 연주하기 전에 미리 연습해 보는 예비과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신체 타악기 오스티나토는 유아나 어린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최초의 기본적인 오스티나토 이다. 4가지 신체타악기의 음 높이는 손가락 튕기기, 손뼉 치기, 무릎 치기, 발 구르기 순 이며 악기 연주 시 악기의 음색이나 연주위치 역시 같은 순 이다. 연주 시에는 대개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 함께 혼합되어 쓰이기도 한다.

<표 1> 신체 타악기 4가지 레벨

신체 타악기 4레벨	무선울 타악기로 전환	선울 타악기로 전환
손가락 튕기기 = S	S = 금속울림	S = SG
손뼉치기 = A	A = 나무울림	A = AG, SM, SX
무릎치기 = T	T = 가죽울림	T = AX, AM
발구르기 = B	B = 큰 타악기	B = BX, BM

3) 선울 타악기

<표 2> 선울 타악기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종류의 악어를 쓴다.

글로켄슈필(Glockenspiel)	자일로폰 (Xylophone)	메탈로폰(Metallophone)
소프라노 글로켄슈필 SG	소프라노 자일로폰 SX	소프라노 메탈로폰 SM
엘토 글로켄슈필 AG	엘토 자일로폰 AX	엘토 메탈로폰 AM
	베이스 자일로폰 BX	베이 스테탈로폰 BM

4) 무 선울 타악기(Unpitched percussion)

<표 3> 무선울 타악기는 아래와 같은 종류와 악어를 쓴다.

가죽울림(Membrancs)	나무울림 (Wood)	금속울림 (Metal)	큰 타악기(Big)
핸드 드럼 - HD 스네어 드럼 - SD 봉고 - Bongo 탬버린 - Tamb	클레이브스 - CI 우드블록 - WB 캐스트넷 - Cast 귀로 - G 마라카스 - Mar 윙 - Whip 라쳇 - Ratchet 비브라슬랩 -VS	트라이앵글 - TR 심벌- Cym 핑거 심벌 - FC 카우벨 - CB 아고고벨- Agogo 슬라이스벨 - SB 윈드 차임 - WC	팀파니 - Timp 콩가- Conga 큰 북 - BD 공- Gong

5) 리코더(Reco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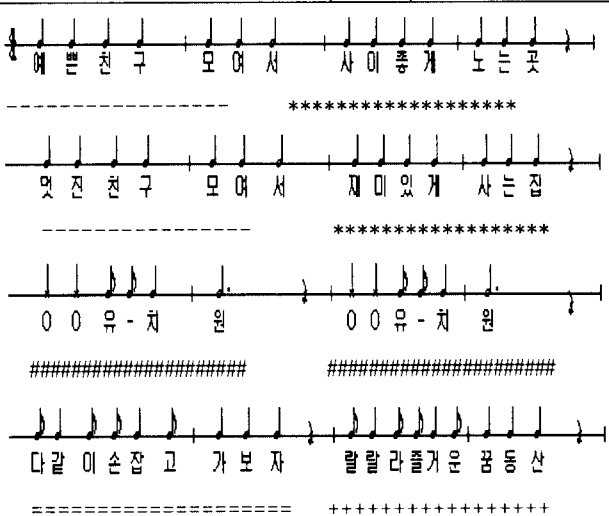
소프라니노(SoR), 소프라노(SR), 앨토(AR), 테너(TR), 베이스(BR)가 있으며, 오르프는 이 중에서 소프라노와 앨토 리코더를 그의 지도법에서 자주 사용하였으며 리코더에 의한 오스티나토 연주를 통하여 즉흥성을 개발하였으며 오르프 리듬악기와 함께 앙상블을 이루어 멜로디 파트를 담당하게 하였다.

IV. 오르프 매체를 활용한 학습활동의 실제

<학습활동 I>

제목	안 념	활동 영역	노래 부르기 + 신체표현
대상	만 5-7세(유치원)		
학습 목표	4박자 리듬을 캐논으로 노래 하며 신체표현 할 수 있다.	음악 개념	박자, 리듬, 화성
자료	반주악기(알토자일로폰)	형태	원형
학 습 활 동	 1. 자연스러운 수업 도입을 위하여 교사는 신체악기로 리듬을 만들어 노래하며 따라하게 한다.(무릎치기1번+손뼉치기1번) 2. 2팀으로 나누어 캐논으로 노래하게 한다. 3. 노래가 익숙해지면 신체악기 대신 신체표현을 하며 노래하게 한다. ※ 신체표현 : 하나-오른발을 오른쪽으로 반보 이동하며 둘 - 왼발을 오른발 옆에 갖다 대며 양손으로 힙치기 셋 - 왼발을 왼쪽으로 복귀하며 넷 - 오른발을 왼발 옆에 갖다 대며 양손으로 번갈아가슴치기 4. 원형으로 서서 3번 동작을 하며 노래의 끝 소절에 한사람씩 자기 소개(I am min u)하면 나머지 사람 echo(You are minu) 5. 자유형태로 돌아다니며 노래의 끝 소절에 옆 사람에게 자기소개.		

<학습활동 2>

제목	유치원(어린이집)	활동 영역	말 리듬 + 신체악기+악기연주
대상	만5-7세(유치원)		
학습 목표	즉흥적인 동작을 일정한 박 안에서 표현할 수 있다.	음악 개념	리듬, 박자, 음색, 형식
자료	우드블럭, 탬버린, 트라이앵글, 봉고,	형태	앉아서
학 습 활 동	 ① 기본 박 무릎치기를 하며 교사를 따라 시를 익힌다. ② 봉고 오스티나토에 맞춰 시를 익힌다. ③ 리듬 박 손뼉 치기를 하며 교사를 따라 리듬을 익힌다. ④ 프레이징 별로 신체 타악기 연주를 해본다. ⑤ 익숙해지면 무선을 타악기로 해 본다.		

<학습활동 3>

제목	이슬비	활동 영역	노래 부르기+즉흥연주
대상	유치원, 초등 저학년		
학습 목표	곡의 형식을 알고 즉흥연주를 할 수 있다.	음악 개념	리듬, 형식, 음색
자료	자일로폰, 우산1.	형태	자유형태
학 습 활 동	 미 슬 비 가 내 려 오 네 창 문 틈 에 내 리 네 빗 소 리 를 들 을 수 있 나? 1. 교사의 선창을 따라서 노래를 배운다. 2. 2팀으로 나누어 캐논 으로도 불러본다. 3. 4박자에 옆 사람과 손뼉 맞추기 또는 말렛(채) 맞추기를 한다. 4. 위 노래를 부르면서 자유롭게 걷다가 4박자에 말렛으로 아무대나 가볍게 포인트를 친다. 5. 뒤 소절은 리듬 따라 말렛 치기를 한다.(허공에나, 손닿는 곳) 6. 노래를 하면서 자유롭게 걷다가 뒷 소절에 교사가 미리 준비한 우산을 펼쳐들고 앉으면 아이들은 말렛으로 우산 위를 두드린다. 7. 둘러앉아서 뒷소절을 자일로폰으로 보르둔 연주를 한다. bordun : Alto/Bass Xylophone  8. 앞 소절을 각자 손가는 대로 즉흥연주를 한다. 9. 한사람씩 번갈아 가며 앞 소절을 즉흥연주하면 뒤 소절을 다같이 보르둔 연주로 답을 한다.		

<학습활동 4>

제목	퐁가 아 라피아(Funga a Lapia)	활동 영역	즉흥연주 + 신체표현
대상	유치원, 초등 저학년	음악 개념	리듬, 빠르기, 형식
학습 목표	즉흥연주를 할 수 있다.	형태	원형
자료	붐핵커, 자일로폰외 각종악기		
학 습 활 동	-짐바브웨이-  1. 붐 핵커를 4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한사람씩 치게 한다.(도,레,미,솔) 교사의 선창에 맞춰 다같이 노래한다. 2. 교사가xylophone과 아이들의 각자의 타악기가 한번씩 번갈아 연주. 3. 노래 tutti (붐핵커 교대 - 멜로디나 리듬 타악기로 전환한다.) 4. 다같이 노래 한번, 멜로디악기, 리듬타악기 각각 창작 연주. 5. “ , 멜로디악기 1사람 지적 즉흥 연주케 한다. (나머지 멜로디 악기는 단순 오스티나토 - 5도, 도솔, 도미 중) 6. 다같이 노래 한번, 리듬 타악기 1사람 지적 즉흥 연주케 한다. (나머지 리듬타악기, 멜로디 악기 모두 단순 오스티나도) 7. 노래에 맞춰 신체표현을 해본다. ※ movement - 기본스텝 -하나(두손 머리) - 둘(두손 앞으로) 셋(두손 입으로) - 넷(두손 앞으로) 하나(두손가슴) - 둘(두손 앞으로) 셋 (두손 X자) -넷(두손바닥 앞으로) ※ bordun : Alto/Bass Xylohpone 		

VI. 결론 및 제언

오르프 교수법은 현대 음악의 불투명하고 난해하며 기술적인 복잡함을 배제하고 단순하지만 흥미롭고, 다분히 음악적이지만 기초적인 요소와 원시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능력과 독특한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고 있다.

음악이 예술이라는 인간의 특별한 행위를 통해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연주되며 전달되어지는 특수성을 부정하기보다는 본성을 존중하며 누구나가 능력과 재능이라는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며 듣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오르프 교수법의 원리를 요약하면,

첫째 그의 철학에서는 음악은 모든 사람의 것'이며, 음악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어야 하며, '음악은 적극적인 놀이의 총체적인 체험'이어야 하며, 음악은 창조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오르프 교수법에서는 리듬이 음악의 요소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이며 언어와 율동은 음악 학습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타악기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표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

셋째 오르프는 음악수업을 위한 어떤 과정이나 표준 지도안을 찾는 사람에게는 해결 방법이 되진 않는다. 그의 음악 학습과정은 진행과정의 설정이 결여되어있고, 교사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사의 능력과 아동의 경험에 따라 적당히 교육과정을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넷째 오르프 학습 매체의 말하기, 노래하기, 신체표현, 악기연주를 통해서 음악에 접근하여 음악적 감각을 계발시킨다는 통합 활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같은 그의 교육방법이 유럽에서 뿐 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수렴, 적용되어 특별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여 년이 지났고 생전에 그의

철학과 교수법을 실제 교육에 적용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시기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오르프 교수법은 현대 음악교육 방법론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문화적 소재에 의한 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종래의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오르프 학습활동의 훈련된 교사 배출을 위한 교사교육과정의 도입과 둘째 오르프 교수법의 이념을 무시한 단순한 흉내나 모방이 아닌 우리나라 유, 초, 중등의 교육과정에 적용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적 소재의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과 셋째 수업 도구(악기) 구입의 현실화가 따라야 한다.

그나마 열악한 교육현장에서도 소수의 유, 초등 교사들의 열의로 오르프 교수법이 조금씩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만 중등 현장교사들의 관심과 참여로 국내에서도 오르프 교수법이 학교현장에 보편화되고 교육환경과 교사의 질적인 향상으로 국내 음악교육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강승규 외 (1993).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동문사.
- 고경화 (2003). **예술교육의 역사와 이론**. 서울: 학지사.
- 구희영, 김남경, 윤대근 (2001). **유아음악교육**. 서울: 양서원.
- 기청, 정세문 (1998). **유아의 음악교육**. 서울: 창지사.
- 김순영 (1976). **Carl Orff의 교육용 작품 Schulwerk 분석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영연 (1997). **유아음악교육론**. 서울: 학지사.
- 박미정 (1999). **오르프 교육론과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적용**. 미출판 석사학위

- 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송상경 (1986). Carl Orff의 Schuwerk-Musik fur Kinder에 관한 고찰.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안재신 (1996). 유아음악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음악대사전, 서울: 신진출판사1974.
- 이경신 (1996). Carl Orff의 음악교수법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이영수 (1992). 칼 오르프의 교육철학과 음악교수법.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출판사.
- 임순영 (2000).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의 리듬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 전인옥, 이숙희 (1998). 유아음악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정정식 외 (2002). 오르프 슈베르크 단기과정 제1기, 2기 교재. 서울: 오르프연구소.
- 조순이 (2002). 한국에서의 오르프-슈베르크와 관련된 문헌에 나타난 문제점 고찰. 음악교육연구.
- 조순이 (2001). “칼 오르프의 음악교육”, 그 발상연구를 위한 그의 초기 논문 소개, 음악교육연구.
- 조효임 외 (1999). 오르프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 천신현 (1998). Orff의 음악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 Carl Orff, Gunild Keetmann. (1950-1954). *Orff Schulwerk - Musik für Kinder, Bd I - V*, Mainz:B. Schott's Sohne,
- Gordon, Edwin, *The Psychology of Music Teaching*,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 Helm, (1975). Evertt, "*Carl Orff*" *The International Cyclopedia of Music and Musicians 12th Eds*, New Youk : Dodd Nead & Co,
- Liess, Andreas & Carl Orff, (1966). *His Life and Music*, trans, Adelheid and Herbere Parkin, London, Calder and Boyars, Ltd.
- Schott, (1987). *Discovering Orff*, Jane Frazee with Kentt Kreuter.
- Stone, Margaret L. (1971). *Kodaly and Orff Music Teaching Techinques : History and Present Practice*. Ph. D. dissertation. Kent State University.
- Wheeler, Lawrence & Lois Raebeck (1972). *Orff and Kodaly Adapted for the Elementary School*, U.S.A: M.C. Brown Co, ublishers.

ABSTRACT

A Study on the learning activity to practical use Orff's Media

Yun Young Bae

The Orff Method has been introduced to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s an advanced music teaching program, and, particularly, is recognized as an effective program in improving creativity, a modern educational idea.

This study aimed to help to apply the Orff Method to education in Korea, beyond the theoretical range of foreign scholars whose culture and environment are different from ours, by systematizing a theory from my point of view on the basis of prior literatures through Orff activities I have performed in domestic Orff institutes and the teaching method I experienced at the Orff Institute in Salzburg, Austria in order to help to understand Carl Orff's music education methodology more systematically and to encourage incumbent educators to utilize Korean contents on the firmer theoretical system and develop a better program.

Theme Word: Orff Method, Orff Media, music education